

학력주의와 청소년의 삶

이 혜 영*

- I. 머리말
- II. 학력주의 사회의 성격과 문제
- III. 학력주의 가치관과 입시경쟁
- IV. 학력 차별의 실상
- V. 입시 위주교육과 청소년의 삶
- VI. 맺음말

I. 머리말

우리나라의 청소년 중에서 대학 입시에 대해 부담감과 압박감, 좌절과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남보다 앞서 있으면서도 좋은 성적을 지키고 더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는 압박감에 마음 편할 날이 없다. 대학 진학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는 성적 부진 학생들은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책감과 실패감, 좌절감으로 괴롭다. 또 경제적 이유로 대학 진학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일반계 고등학생이나 일찍감치 대학 진학의 가능성에서 벗어나있는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사

회의 주류에서 밀려나 있다는 소외감을 떨쳐 버리지 못한다. 한 마디로 우리의 청소년들은 입시 위주의 획일적 교육체제와 “대학 진학 실패는 곧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통념하에서 주체적 존재로서의 길을 모색하지 못한 채 입시 경쟁에 내몰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과열 입시 경쟁이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부담과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에 누구나가 공감할 하면서도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합당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의 뿌리가 그만큼 깊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대학을 나와야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사고 방식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고, 그러한 의식을 가지게끔 하는 사회경제적 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입시 경쟁과 입시 위주 교육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과열 입시 경쟁을 촉발하고 있는 학력 차별의 실상을 살펴보고, 입시 위주 교육이 청소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학력주의 사회의 성격과 문제

학력은 개인이 받은 교육 경력을 말하는 것으로 중졸·고졸·대졸 등과 같이 교육 단계의 차이에 따라 종적으로 분화된 것과 한 교육 단계내에서 학교의 종류 및 위신(예컨대 일류 대학, 이류 대학 등)의 차이에 따라 횡적으로 분화된 것의 두 개의 차원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학력은 개인이 받은 교육의 수준과 내용을 증명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개개인에 대한 평가 및 처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학력이 개인의 사회적 지위 획득에서 핵심적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학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회를 학력주의 사회 또는 학력 사회라고 부른다. 과거의 신분 사회에서 개인의 사회적 지위는 가문, 혈통 등의 생득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신분 제도가 무너진 근대시민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지위 경쟁의 문호가 개방되었고, 귀족주의에 의한 지위 배분이 더 이상 정당화 되지 않는다.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그가 속해 있는 집단의 특성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사회적 보상을 배분하는 업적주의의 이념이 대두된 것이다.

학력을 기준으로 하는 선발체제가 성립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이다. 학교는 능력과 노력에 따라 성적을 매기고 진급시키므로 업적주의를 문자 그대로 실현하고 있는 제도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초등교육이 보편화되어 누구나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이어서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개방됨으로써 누구나 학교에 취학하여 능력과 노력에 따라 진학할 수 있게 되었고, 학업 성취 수준에 따라 특정 수준을 나타내 주는 공인된 '품질 증명'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국민학교 졸업자

보다는 중학교 졸업자가, 중학교 졸업자보다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하더라도 소위 일류학교 졸업자가 열등한 학교 졸업자보다 우수한 인재로 평가받고 있다. 과거의 신분 사회에서는 명문 족보가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한 자격 조건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교육자격증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즉, 학력이 사회적 지위 획득의 요건으로 확립되게 된 것이다.

학력을 기준으로 하는 선발체제의 수립은 근대 시민사회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던 합리성을 추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혈통, 가문 등 생득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회보다 개인의 능력과 성취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회가 합리주의 정신에 합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능력과 성취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회가 합리주의 정신에 합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학력이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에 대응하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다. 학력이 직업 수행에 필요한 능력 또는 실력에 대응할 때 학력주의는 합리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산업화와 관료제화가 고도로 진전된 현대 사회에서는 능력 또는 실력과 관계없이 형식적 자격으로서의 학력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여러 나라에서 직업 상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채 취업시 특정한 학력이 요구되는 '자격 중심주의(credentialism)'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일단 특정 학력을 획득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 개인의 사회적 지위는 과거에 획득된 학력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게 된다. 학력을 획득할 때까지 업적주의가 작용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학력이 일종의 사회적 신분이 되어 이것에 의해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어 버리는 것이다. 말하자면 학력을 획득함으로써 얻

게 되는 지식, 기술 등의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획득된 학력 자체 즉, 교육자격을 자체를 중시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관행과 의식이 지배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예컨대 대졸 학력은 그 실질적 능력 여부에 관계 없이 높게 평가되고, 또 명성있는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용, 임금, 승진 등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학력주의가 만연하게 될 경우 학력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 극심해지며, 경쟁이 극심한 만큼 ‘승리자’가 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게 되므로 여러가지 병폐 현상이 야기된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과열과외, 재수생 문제, 입시 부정 등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여러가지 병폐 현상 중에서 무엇보다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교육이 그 본래의 목적을 추구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영국의 학자인 도어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교육이라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은 머리 속에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의 과정을 그린다. 지적인 회열을 맞보기 위해서 지식을 추구하는 경우에도, 자존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식을 추구하는 경우에도, 그리고 유용한 목적을 위해 지식을 배우는 경우에도 지식을 습득하는 것 자체를 중요시 한다. 그러나 자격 획득이 목적인 경우 학생들은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습득했다는 증명을 받는 것에 관심을 둔다. 그들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격을 획득하는 수단이다. 교육은 일을 하기 위해 학습하는 것이지만 학력 획득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학습하는 것이다.¹⁾

현재 한국 교육을 지배하고 있는 입시 위주 교육은 이와 같은 가치의 전도 현상 내지는 본말 전도 현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Ⅲ. 학력주의 가치관과 입시 경쟁

상급 학교 진학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의 과열과 이러한 경쟁의 과열화 현상을 진정시키고 경쟁을 보다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입시제도 개편의 반복. 이것이 해방 이후 한국 교육의 모습을 틀 지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국의 입시 경쟁은 흔히 국민의 교육열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열과외, 재수생 문제, 8학군 문제 등 입시 경쟁에서 빚어진 현상과 문제의 원인을 열거하는 가운데 주범으로 등장하는 것이 국민의 교육열이다. 한국과 특정한 학교에 대한 욕구하고 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학 학력과 그 중에서도 ‘일류 대학’이라는 ‘간판’에 대한 욕구로서 하급학교 교육에 대한 이러한 욕구가 하향적으로 연장된 것이다. 이러한 욕구는 1960년대에는 중학교 입시의 과열로, 그 이후로는 대학교 입시의 과열로 표출되었다. 1960년대의 명문 중학교와 70년대 초까지 존재했던 명문 고등학교는 명문 대학에서의 입학을 보장해주는 통로였던 것이다.

대학교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높은가는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배종근·이미나의 연구에 의하면²⁾ 조사 대상자의 57.7%가 아들을 대학까지, 38.9%가 대학원까지 교육시키겠다고 응답하므로써 전체의 96.6%가 자신의 아들이 최소한 대학

1) Ronald Dore, The Diploma Disease, London : George Allen & Unwin LTD. 1976. p.8.

2) 배종근·이미나, 「교육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문교부 학술 조성 연구 보고서, 1988.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1994년에 실시한 한국인의 교육 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³⁾ 자녀의 나이가 고교 재학 이하인 일반인들의 92.9%가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까지 받았으면 좋겠다고 답하였으며, 아들과 딸에 대한 희망 수준도 의의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대학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은 사람들이 대학 학력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몇몇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학 교육의 사회 경제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2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교육관 조사 연구에 의하면⁴⁾ 대학에가는 이유에 대해 조사 대상자의 63.2%가 “좋은 직장을 갖는 데 유리하다”, “급여, 승진에 유리하다” 등의 경제적 동기에 응답하였다. 최영표 등의 연구에서는⁵⁾ 사람들이 대졸자와 고졸자간의 격차를 어떤 측면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가를 5단계 척도를 적용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사람들은 대졸자와 고졸자간의 격차를 지식과 기술, 교양, 사회성 및 예의 범절보다는 보수, 권력, 직업 획득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2년의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⁶⁾ 학부모들은 대학에 다니지 않은 사람이 겪는 어려움으로 깊은 지식과 교양의 부족(12%) 보다는 사회적으로 대우 받지 못함(36%), 직업 선택의 폭이 좁음(22%), 임금 차별(13%), 승진에서 불이익(11%), 결혼(5%) 등을 들고 있다. 요컨대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육의 가치를 대학교

육을 통해서 갖추게 되는 실질적인 내용이나 자질보다는 그것이 가져다 주는 사회 경제적 보상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어떤 인간이 길러지고 있는지, 현재 자녀들이 받고 있는 교육이 바람직한 것인지 등 교육의 내용과 질에 대해서보다는 학교에서 보다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데에 온 관심을 쏟고 있다.

학력의 사회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학력주의 가치관은 한국사회의 문화적 전통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가족주의와 학벌주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가족주의는 가족 단위의 집단적 결속력을 중시하는 관념이며, 학벌주의는 개인이 받은 교육의 정도와 성격을 중시하는 관념이다. 이 두 관념은 상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한국사회의 학력 경쟁을 유발하는 문화적 요인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가족주의는 한국사회에서 전통적인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관념으로서 가족, 친족의 집단적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다. 공자는 “사람이 출세를 하고 진리를 행하고 자신의 이름을 후세에 남기고 그로 인해서 양친에게 영예를 가져다 준다면 그로서 효의 궁극 목표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즉, 자녀의 출세와 명예는 부모의 명예이자 공경이며, 부모에 대한 효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출세의 지름길인, 소위 일류 대학에 입학하는 자녀는 부모에게 효행을 다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요즈음의 부모들은

3) 김영화·이인호·임진영, 「한국인의 교육의식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4.

4) 이종재·정영애·이인호, 「한국인의 교육관」, 한국교육개발원, 1982.

5) 최영표·한단길·이해영, 「고학력화 현상의 진단과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1989.

6) 김영화, 「한국교육의 종합이해와 미래구상—학부모와 자녀교육 편—」, 한국교육개발원, 1982.

자녀에 대하여 직접적인 공경과 부양을 기대하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자식이 일류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서 출세하는 것을 공경과 부양으로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부족한 일면을 자식을 통하여 보상해 보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즉, 경제적 빈궁, 사회적 천대, 개인적 열등의식 등을 자식의 교육을 통하여 만회하려고 한다. 다음 글에서 부모의 자식에 대한 욕구가 가족이라는 집단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다.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고 일단 전세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날 보잘 것 없는 직장에 다니던 큰 아들 친구와 둘째 천수와 함께 앞날을 의논하다가 남편 생각, 아버지 생각에 모자가 다 같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어렵더라도 천수의 공부만은 계속시키기로 했습니다. 천수는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 했기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것이 마음 아팠고, 천수를 통해 다시 집안을 일으켜 보자는 욕심도 있었습니다.⁷⁾

학벌주의는 과거제도의 전통이 낳은 결과로서 현대의 대학이 입신 출세의 관문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을 학벌주의의 주요 매개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출세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위와 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지름길은 일류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일류 대학에 합격하는 일은 조선시대에 과거에 합격하는 것과 유사한 성격을 띠게 된다. 대입 수험생을 두고 있는 한 어머니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절실하게 말해

주고 있다.

대학 진학이 곧 성공적인 사회 생활의 지름길 이요, 어떤 대학을 나오는가가 곧 그 사람의 능력과 잠재성을 결정짓는 척도라는 사실은 이미 사회 통념화되어 있다. 실제 그 통념은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 사회적 구조의 부조리에 대한 논란은 막상 입시에 닥쳐 있는 수험생 당사자나 그 부모에게는 이미 그렇게 큰 의미를 주지 않는다.⁸⁾

요컨대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을 계층 상승의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통로로 인식하고 학교를 졸업 후의 사회 진출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학력, 보다 좋은 학벌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

IV. 학력 차별의 실상

한국인의 학력주의적 가치관이 학력 경쟁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가치관은 생래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한국 사회에는 오랫동안 고학력자에게 높은 사회 경제적 보상을 부여하는 학력주의적 관행이 지배하여 왔다. 일제는 일찌기 학력을 식민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일제는 단순 노동자의 경우 한국인 노동자에게는 일본인 노동자의 1/2에 해당하는 낮은 임금을 지급한 반면, 고학력자인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인 경우에는 한국인과 일본인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였다.⁹⁾ 해방 이후에는 유동적인 사회계층 구조 속에서 교육이 실제로 계층 이동에

7) 김옥수, “파출부 아들의 빛나간 결심”, 「고3 엄마」, 작은 기획, 1989, 35쪽.

8) 김기자, “까다로운 상전”, 「고3 엄마」, 작은 기획, 1989, 318쪽.

큰 영향을 미쳤고 1960년대 이후의 산업화 과정에서 고학력자가 높은 사회 경제적 대우를 받아왔다. 여기서는 노동시장에서의 학력 차별 현상과 사회계층 형성에서 학력의 역할을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노동시장의 학력 차별

한국 사회에서 학교교육 수준 즉, 학력은 직업 지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3년 현재 직종별 취업자 현황을 보면 대졸자는 전문기술직 종사자 중 71.9%, 행정관리직의 56.3%를 차지하고 있으며, 판매직과 서서비스직 및 생산직에서는 각각 14.6%, 6.6%, 4.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고졸자는 사무관련직 중 59.0%, 판매직 중 50.8%, 서서비스직 중 41.5%, 생산직 중 48.3%를 차지하고 있다. 또 중졸 이하는 주로 서서비스직, 농림 수산업,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다. 이처럼 학력과 직업 지위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1〉 학력별 직종별 취업자 현황

(단위 : 천명, %)

	합 계	전 문 기술직	행 정 관리직	사 무 관련직	판 매 종사자	서서비스직	농림수산업	생산 운수 장비운전자 단순노무자
합 계	19,203 (100.0)	1,625 (100.0)	357 (100.0)	2,883 (100.0)	3,053 (100.0)	2,366 (100.0)	2,818 (100.0)	6,100 (100.0)
중졸이하	7,838 (40.8)	61 (3.8)	35 (9.8)	134 (4.6)	1,055 (34.6)	1,229 (51.9)	2,428 (86.2)	2,897 (47.5)
고 졸	8,041 (41.9)	395 (24.3)	121 (33.9)	1,700 (59.8)	1,552 (50.8)	981 (41.5)	343 (12.2)	2,948 (48.3)
대 졸	3,324 (17.3)	1,169 (71.9)	201 (56.3)	1,049 (36.4)	446 (14.6)	156 (6.6)	47 (1.7)	255 (4.2)

자료 :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여보」, 1993.

이와 같은 학력과 직업 지위의 관계는 기업의 직원 채용 기준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원을 채용할 때 가장 강조하고 있는 기준은 학력이다. 신문에 게재된 종업원 모집 공고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신규 채용 공고를 낸 883개업체 가운데 학교교육 수준을 자격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업체는 93.9%이고,

경력사원 채용 공고를 낸 42개 업체 가운데서도 학교교육 수준을 자격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업체는 85.5%인 것으로 나타났다.⁹⁾

또한 고용주들이 노동자를 채용할 때 특히 선호하는 학력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각 기술 수준별로 선호하는 학력이 뚜렷이 구분됨을 알 수 있다. 〈표 2〉에 의하면 기술자의 경우 238개 조

9) 박원구·박세일, 「한국의 임금구조」,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총서 54, 149쪽.

10) 이효수, 「노동시장 구조론」, 법문사, 1984, 236쪽.

사 대상 업체 가운데 섬유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
종에서 100% 대졸자를 선호하고 있고, 기술공의
경우는 평균 82.8% 이상의 기업이 고졸자를 선호

하고 있다. 그리고 숙련공, 견습공, 미숙련공의
경우에는 국졸이나 중졸 정도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다.

〈표 2〉

채용에 있어서 선호되는 교육 수준

	업 종					평 균
	음·식료품	섬 유	화학·석유	금 속 제품기계	기 타	
미숙련공	M(4.17)	P(68.8)	M(42.9)	P(66.7)	M(57.1)	P(41.8)
견 습 공	H(33.3)	M(40.0)	M(58.8)	M(70.7)	M(54.3)	M(52.8)
숙 련 공	M, H(41.7)	M(43.6)	M(64.3)	H(46.6)	M(44.4)	M(38.7)
기 술 공	H(100.0)	H(73.6)	H(92.0)	H(83.8)	H(74.1)	H(82.8)
기 술 자	U(100.0)	U(85.7)	U(100.0)	U(100.0)	U(100.0)	U(97.9)

주: 1) P는 국민학교, M은 중학교, H는 고등학교, U는 대학 졸업자를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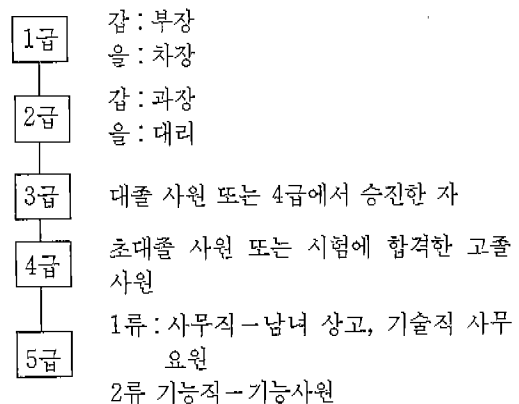
예컨대 M(41.7)은 응답 기업의 41.7%가 중학 졸업을 다른 어떤 교육수준보다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기타는 제지, 비철 금속, 제 1차 금속, 기타 제조업을 포함.

자료: 배무기 박재윤, 「한국의 공업노동 연구」,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78, 119쪽.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의 직급 체계를 보면 학
력에 따라 종사하는 직종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은 전형적인 대기업의
종업원 직급 체계이다. 대졸의 입직구는 3급, 초
대졸은 4급, 고졸은 5급으로 뚜렷이 구분되어 있
다. 대졸 사원은 3급에서 2급, 2급에서 1급으로
승진이 가능하며, 고졸은 4급, 3급을 거쳐 2급,
1급으로 제도상 승진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고졸 사원은 사실상 3급까지 승진하기도
어렵고 2급까지 승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¹¹⁾
최근에 대표적 기업인 S그룹이 사원 채용에 학력
제한을 철폐하여 고졸자도 능력만 있으면 대졸자
와 동이란 직급으로 입사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
을 발표하였으므로¹²⁾ 앞으로 기업의 고용 관행이

〈그림 1〉 종업원 직급 체계



자료: 최종태, “중공업”, 김수곤 하태현(편), 「노사관계 사례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82, 200쪽.

11) 홍성우, “노동시장 구조와 학력별 임금 격차”, 「전남대 경영대학원 논문집」, 1987, 83-103쪽.

12) 세계일보, 1995. 3.1

변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제까지의 고용 관행에서는 학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결국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학력별로 그 입직구가 명백히 구분되는 학력별 단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효수는 노동시장을 학력 수준에 상응하는 4단계의 단층으로 구분하고 있다.¹³⁾ 제1단층은 특별한 지적 능력이나 학교 교육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직이다. 제2단층은 종졸자와 고졸 여자로 구성되며, 관리직으로의 승진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제 3단층은 고졸 남자를 중심으로 전문대 졸업자, 대졸 여자 등으로 충원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으며, 중간 관리직으로의 승진 기회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제4단

층은 주로 대졸 남자로 충원되는데 이들에게는 승진 기회가 부여된다.

이와 같은 단층적 노동시장에서는 각 단층간에 현격한 취업과 임금 격차가 존재하며 단층간의 상호 이동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표 3>에 제시된 단층별, 직급별 근로자수의 분포를 보면 그와 같은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다. 이 표에 의하면 제4단층 근로자 가운데 71.5%는 관리직이고, 특히 57.3%는 중간 관리직층 이상에 해당한다. 이에 비하면 제3단층은 중간 관리직층 이상에는 거의 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69.4%가 하위 관리직층과 사원이다. 제2단층은 사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거의 없으며, 96.8%가 공원이나 여사무직 사원으로 되어 있다.

<표 3> 단층별, 직급별 근로자 구성비, 평균 임금 및 평균 연령

	상위관리층	중간관리층	하위관리층	사 원	공 원	단층별 노동자 총 수(명)
제 4 분포(%)	25.4	31.9	14.2	28.1	0.4	100.0
단 층 임금(원)	499.202	346.786	291.620	245.169	226.340	(245.257)
연령(세)	42.5	37.3	33.1	30.3	32.6	
제 3 분포(%)	0.0	0.0	9.6	59.8	30.6	100.0
단 층 임금(원)			287.992	184.776	147.074	(660.373)
연령(세)			38.2	31.1	27.8	
제 2 분포(%)	0.0	0.0	0.4	0.8	98.8	100.0
단 층 임금(원)			304.923	225.352	109.483	(1,823,175)
연령(세)			46.4	39.0	26.8	

주: 1) 상위관리층은 차장급 이상, 중간관리층은 과장급, 하위관리층은 계장급 이하의 관리직을 말함.

2) 제4단층 자금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제2단층, 제3단층을 재조정하였음.

3) “직종별 임금 실태 조사 보고서”에서 각 단층의 ‘해당 없음’란은 임금 수준, 연령, 근속 연수 등을 고려하여 각 단층의 해당되는 직급에 포함시켰음.

자료: 노동청, 「직종별 임금 실태 조사 보고서」, 1980년을 바탕으로 단층 구분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음. 이효수, 앞의 책, 259쪽에서 인용.

13) 이효수, 앞의 책, 250-63쪽.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는 학력이 채용의 기준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임금 결정 기준으로서도 작용하고 있다. 즉, 업무의 내용, 성격이 동일해도 학력간에 큰 임금 격차가 존재하며 동일 학력이면 업무 내용과 관계없이 유사한 수준의 임금이 주어진다. 이와 같은 관행은 어느 기업의 임금 체계표를 보아도 발견된다. 이러한 임금 관행은 일단 채용되면 학력보다는 수행하는 직종이나 직무의 내용, 성격 및 작업 성과에 따라 임금 수준이 결정되는 구미의 임금 관행과 차이가 있다.¹⁴⁾

〈표 4〉는 학력간 임금 격차의 연도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학력간 임금 격차는 점차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학력간 차이보다도 고졸자와 대졸자의 격차가

현저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1980년대에는 대졸자가 고졸자보다 2배나 높은 임금을 받았으나 92, 93년의 고졸자 대 대졸자의 임금비는 각각 100 : 160, 100 : 153으로 80년대에 비해 상당히 호전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학력간 임금 격차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4년제 대졸자는 고졸자에 비해 1.4배(1980)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대만은 1.3배(1976), 미국은 1.4배(1973)의 임금을 받고 있다. 이들 나라와 비슷한 시기인 1970년대 초반(1972-74)과 70년대 후반(1977-79), 80년대 초(1980-81)에 우리나라의 대졸자는 고졸자에 비해 각각 1.79배, 1.96배, 1.89배의 임금을 받고 있다.¹⁵⁾

〈표 4〉 학력간 임금 격차의 변화

(단위 : 원, %)

	전학력		중졸 이하		고 졸		초대(전문)졸		대졸 이상	
	월급여액	수준	월급여액	수준	월급여액	수준	월급여액	수준	월급여액	수준
1980	15,747	97	113,143	73	155,647	100	226,763	145	338,208	217
1984	252,302	103	193,279	80	243,158	100	318,110	130	521,844	215
1988	374,439	108	297,874	86	347,935	100	419,976	120	664,202	191
1992	691,637	110	575,251	91	630,430	100	719,370	114	1,010,551	160
1993	757,007	108	643,934	92	700,926	100	763,837	109	1,073,426	153

주 : 임금은 정액 및 초과 급여액 기준임.

자료 : 노동부, 「직종별 임금 실태 조사 보고서」, 1980, 84, 86, 90.

_____,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 보고서」, 1993.

다음으로 학력에 따른 경력 연수별 임금 격차를 알아보기로 하겠다. 〈표 5〉는 학력별로 1년 미만의 경력을 기준으로 한 경력 연수별 임금 수

준을 보여주고 있다. 경력별로 임금에 따른 격차가 가장 큰 학력은 대졸 이상으로 '1-2년' 111.9, '3-4년' 129.3, '5-9년' 153.9, '10년 이상'

14) 박원구 박세일, 앞의 책, 130-133쪽.

15) 박세일, "한국의 임금 격차", 배무기(편), 「한국의 임금」, 문학과 지성사, 1985, 42-66쪽.

〈표 5〉 학력별 경력 연수별 임금 격차

(단위: 원, %)

		전학력	중졸 이하	고 졸	초대졸	대졸 이상
전 경 력	월급여액	757,007	643,934	700,926	763,837	1,073,426
	수 준	149.4	146.0	145.4	138.7	155.8
1년 미만	월급여액	506,737	441,070	482,023	550,807	688,835
	수 준	100.0	100.0	100.0	100.0	100.0
1-2 년	월급여액	569,073	487,168	544,804	610,059	771,145
	수 준	112.3	110.5	113.0	110.8	111.9
3-4 년	월급여액	669,903	577,461	630,252	697,299	890,699
	수 준	132.2	130.9	130.8	126.6	129.3
5-9 년	월급여액	793,362	666,340	748,359	836,891	1,060,131
	수 준	156.6	151.1	155.3	151.9	153.9
10년 이상	월급여액	1,052,054	828,309	1,002,965	1,095,246	1,461,870
	수 준	207.6	187.8	208.1	198.8	212.2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 1993.

212.2의 수준을 나타냈는데, 이는 다른 학력 계층보다 경력 연수에 따라 승진등에 의한 직급 향상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졸과 대졸 이상의 임금 변화를 보면 고졸은 1년 미만 48.2만원에서 10년 이상 100.3만원으로 52.1만원이 상승하여 208.1%의 상승률을 보여 대졸자의 상승률이 약간 높다. 또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 격차가 1년 미만에서는 20.7만원이었던 것이 10년 이상이 되면 45.9만원으로 벌어지고 있다. 또 대졸 경력 20.7%만원이었던 것이 10년 이상이 45.9만원으로 벌어지고 있다. 또 대졸 경력 1년 미만과 고졸 경력 3-4년이 63만원으로 5.9만원의 격차를 보이고, 대졸 5-9년이 106만원, 고졸 10년 이상이 100.3만원으로 5, 7만원의 격차를 보인다. 따라서 고졸자 대졸의 임금 격차는 동일 경력과 동일 연령에서도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학력간 평균 임금의 격차는 고

학력자가 임금 구조면에서 어느 정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학력간 평균 임금의 격차는 학력별 직종 구성의 차, 학력별 산업 구성의 차, 학력별 연령 구성의 차 등을 통제하지 않은 채 산출된 것이므로 종사 산업, 직종, 연령 등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단순히 학력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순임금 격차를 보여 주지는 못한다.

1986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순임금의 상대비는 대졸(남):고졸(남)의 경우가 1.522:1, 고졸(남):중졸(남)의 경우가 1.102:1이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학력간 임금격차 문제는 대졸자와 고졸자간의 문제로 집약됨을 알 수 있다. 대졸자와 고졸자간의 총 임금 격차를 학력, 고용구조, 학력 이외의 인적 속성의 차이에 의한 격차로 분해해보면 남자의 경우 약 60%, 여자의 경우 약 52%가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고 학력이 다르

다는 이유만으로 존재하는 순격차로 나타난다.¹⁶⁾

고졸자의 노동시장이 불안정하다는 사실도 고졸자의 취업 진로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졸자의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학력별 실업 상황과 학력별 이직상황에서 확실하게 드러난다. 실업자수를 볼 때 1993년 현재 고졸자가 30만여명으로 가장 많다. 비록 80년대 중반부터 90년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전체 실업자 중 구성비는 언제나 가장 높고 1993년에는 무려 54.8%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고졸자가 취업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협소한데에 기인한다. 또 중졸 이하의 실업자가 감소하는 반

면 대졸 이상의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대졸자는 80년대 초반까지는 실업자가 가장 적었으나 80년대 중반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81년부터 시행된 졸업정원제로 대학 졸업자수가 급격히 증가한데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즉 노동 수요의 부족보다는 노동 공급의 과다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졸자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로 이직자수를 들 수 있다. <표 7>을 보면 1993년 상반기의 이직자수는 고졸자가 40.3만명으로 전체 이직자 중 56.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반기 이직자수는 34.2만명으로 전체 이

<표 6> 학력별 실업자수 및 구성비 변화

(단위: 천명)

	총 계		국졸이하		중 졸		고 졸		대졸이상	
	실업자	구성비	실업자	구성비	실업자	구성비	실업자	구성비	실업자	구성비
1982	654	100.0	114	17.4	156	23.9	314	48.0	71	10.9
1984	568	100.0	94	16.5	130	22.9	262	46.1	82	14.4
1986	611	100.0	84	13.7	117	19.1	286	46.8	124	20.3
1988	435	100.0	37	8.5	77	17.7	220	50.6	101	23.2
1990	451	100.0	35	7.8	64	14.2	238	52.8	114	25.3
1993	551	100.0	35	6.4	73	13.2	302	54.8	141	25.6

자료: 경제기획원, 「경제 활동 인구 연보」, 1987, 1993.

<표 7> 학력별 입직자 및 이직자수

(단위: 명)

			합 계	국졸이하	중 졸	고 졸	전문대졸	대 졸
1993년	상반기	입직자	705,156	54,105	140,812	382,554	48,470	79,215
			(100.0)	(7.7)	(20.0)	(54.3)	(6.9)	(11.2)
		이직자	714,759	60,934	146,363	403,370	46,045	58,047
			(100.0)	(8.5)	(20.5)	(56.4)	(6.4)	(8.1)
	하반기	입직자	648,766	44,046	124,046	387,622	44,288	68,764
			(100.0)	(6.8)	(19.1)	(59.7)	(6.8)	(10.6)
		이직자	599,697	52,241	120,348	341,591	37,167	48,350
			(100.0)	(9.2)	(21.1)	(60.0)	(6.5)	(8.5)

자료: 노동부, 「노동력 유동 실태 조사 보고서」, 1993.

16) 성백남, “한국의 학력별 임금 격차의 실태와 원인”, 「산업과 경영」, 제25권 제1호, 1988, 121-141쪽.

직자의 60.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졸 이직자수는 상반기에 5.8만명(8.1%), 하반기에 4.8만명(8.5%)에 불과하다. 전반적으로 이직자수는 고졸 이상의 학력보다 그 이하의 학력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학력에 따른 사회계층화

노동시장 구조 형성에서 학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학력이 사회계층 이동과 구조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사회계층 구성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직업과 수입이 학력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해방 이후 사회 변화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계층 구조의 변화와 계층 이동이 활발히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60년대 세대간 직업 이동률은 상승 이동을 28%, 하강 이동을 29%로 총 57%로서 높은 이동률을 보이고 있다.¹⁷⁾ 1970년대의 계층 이동을 보면 계층 세습률은 하층에서 가장 높고(52.8%) 상층에서 가장 낮다(29.0%). 계층별 상승 이동률은 48-35%이고 하강 이동률은 73%에서 15% 사이에 있다.¹⁸⁾ 이와 같은 계층이동 과정에서 학교교육이 계층 이동에 상당한 효력을 발휘했음을 보여 주는 연구 결과들을 찾아볼 수 있다.¹⁹⁾ 이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학교교육 수준 즉, 학력이 사회적 성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한국 사회계층 구성 연구에 의하면²⁰⁾ 자본가

계급(개인 기업주, 고급 관리자, 고급 공무원)과 임금 취득 중간층(중하급 관리자와 행정 공무원), 인텔리층(전문직·기술직)은 대부분 대졸자로 구성되어 있다. 자영업자층은 비교적 학력과 무관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동자 계급 구성은 학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노동자 계급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농업노동자는 사무 노동자, 판매 노동자, 서서비스 노동자, 산업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대졸자가 포함되어 있는것은 사무 노동자이다. 그러나 사무 노동자 중 대졸자는 경력년수가 낮아 현재 평사무원으로 있을 뿐이며 거의가 곧 하급 관리직으로 승진할 층이다. 따라서 사무 노동자의 일부를 제외하면 판매·서서비스·산업 노동자의 대부분이 고졸 이하의 학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간 계층으로의 상승은 거의 막혀 있다. 대졸 학력은 일차적으로는 중간 계층으로의 편입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전문 엘리트로의 상승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따라서 학력에 따른 계층 구성으로 보아 고졸 학력과 대졸 학력은 노동자계층 아니면 중간 계층으로의 진입을 결정하는 분기점이 되는 것이다.

V. 입시 위주 교육과 청소년의 삶

한국인의 대학에 대한 열망은 대학 입시를 특정한 것으로 만들었다. 대학 진학은 한국인의 삶의 목표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의 모든 교육은 대학 입

17) 이상백·김치윤, 「한국의 사회계층 연구」, 민조사 1966, 86-91쪽.

18) 김영모, 「한국의 사회계층 연구」, 일조각 1982, 361쪽.

19) 유팔무, 「세대간의 사회 이동과 교육기회 불평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1; 김병성의, 학교교육과 사회적 성취, 한국교육개발원, 1982; 김영화, 「개인의 지위 획득 및 지위 변화 과정에 작용하는 학교교육의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강희돈, 「한국의 사회 이동과 학교교육의 효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8.

20) 서판모, 「한국 사회계층 구성의 사회 통계적 연구」, 한국산업사회연구회, 「산업사회 연구」 제1집 한울, 1985, 23-192쪽.

시의 준비 단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되고 있다. 학교교육은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모든 교육 활동은 입시 준비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른바 ‘입시 위주 교육’을 치닫고 있는 것이다.

입시 위주 교육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우리의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입시 위주 교육이 청소년의 삶을 어떻게 제약하며 왜곡하고 있는가를 간략히 기술한다.

1. 공부 · 시험 · 성적에 대한 압박감으로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겪다.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에서는 전통적으로 폭넓은 사고와 창의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학 입시의 출제 방식이 객관식 선다형이기 때문에 입시 준비 교육으로는 주입식 수업과 암기 학습이 제 일이다. 또 획일적이고 경직된 입학 시험에 대비하는데에는 학습 시간을 최대한 늘리고 시험으로 자주 학습 내용을 반복해서 익히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하여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새벽부터 밤까지 붙들어 놓고 아침 자습, 정규수업, 보충 수업, 자율 학습을 시키고 있다.

아울러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시험을 자주 본다. 말하자면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시험 횟수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중등학교의 정규 시험 즉, 생활 기록부에 성적이 기재되는 시험은 대개 한 학기에 2회씩 1년에 4회를 치른다. 이 시험은 모든 과목을 보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 일주일 이상씩 걸린다. 이 시험 이외

에도 모의 고사, 배치 고사, 도 지정 고사 등의 공식적인 시험이 한 달에 한 두번씩 있으며, 이 공식적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예비 시험이 담임 교사와 각 과목교사에 의해서 수시로 치루어진다. 그래서 학생들은 시험 문제 풀이에 골몰하게 된다. 아예 공부를 시험 문제 풀이 연습으로 생각하는 교사, 학부모, 학생도 많다. 시험 문제 풀이는 고등학교 뿐 아니라 국민학교에서도 성행하고 있다.

시험은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성적은 공개되고 교사들이 칭찬하고 벌을 주는 근거가 된다. 특히 대학 입학을 목표로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성적의 서열에 의해 학생들의 위상이 정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자아 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²¹⁾

시험 성적을 올려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지상의 목표가 되고 있는 교육 풍토 속에서 학생들은 공부, 시험, 성적에 대한 부담과 공포로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신적 · 신체적 능력의 한계를 넘는 공부 부담,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과 시험에 대한 공포, 성적 부진과 이로 인한 부정적 낙인 등은 장기적인 불안 요인이 되고 성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심한 경우에는 정신적 · 신체적 병리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청소년들은 학교 공부와 성과와 관련하여 대단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한 연구에서 그러한 스트레스가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조사했는데 그 반응은 큰 소리를 지르고 싶다(38.5%),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다(36.4%), 불안하고 초조하다(33.5%), 두통이 있다(32.3%), 무언가를 부수거나 때리고 싶다(30.7%), 웬지 모르게 슬프다(24.5

21) 김소희,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생활과 성적의 의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40-043쪽.

22) 문화방송, 『'91 MBC 청소년 백서』, 서울 : 문화방송, 1991.

%), 부모나 선생님께 반항한다(16.8%), 복통이나 위장병이 있다(14.0%), 자살하고 싶은 심정이다(11.3%), 가출하고 싶다(8.8%), 축농증 등 비염이 있다(8.0%), 불면증(6.7%), 악몽(4.0%) 등으로 나타났다.²³⁾ 이러한 경험을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1.1%에 불과하였다.

공부 압력과 성적 부진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반응 양태는 자살로 나타난다. 학교 성적을 비관하여 자살한 학생에 대해서 중·고등학생 중 70.2%가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거나, 대체로 이해한다는 반응을 하였다는 사실에서²³⁾ 입시 위주의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고 있는지를 절감할 수 있다.

2. 편협한 입시 공부로 자아를 탐색하고 확립할 여유가 없다.

청소년기는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열려 있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자신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인생의 단계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에는 전인적 발달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폭넓은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철학·예술·문학·과학 등 인간 정신 활동의 제 분야에 대한 독서와 작품 감상, 사색, 대화와 토론, 정감어린 친구와의 교제, 타인과 사회에 대한 봉사 등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해 보아야 할 활동은 아주 많다.

그러나 중등학교에서는 대학 입시 과목인 주지 교과 위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인 교육은 구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교과에 대해서는 법정 수업 시수를 초과하여 과당 배정하고 예체능 및 특별 활동, 학생 자치 활동 등 입시와 관계가 적은 교육 활동은 빼먹는 변칙 운영을 서슴치 않는다. 이처럼 입시 준비를 위한 공부만을 강요하는 교육 풍토 속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고민하고, 사물과 인생을 탐색하고 사유하며, 문학 작품이나 영화를 깊이 있게 감상하고, 운동하며 놀이를 즐길 시간과 정신적 여유가 없다. 한 연구에 의하면 입시 문화 속의 학생들이 여가를 즐기는 방식은 즉흥적이고 일회적이다. 대학 입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가장 나쁜 것은 놀이의 결과가 장기간 후유증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책을 보거나 영화 감상을 하더라도 그 순간만 몰입해야지 여운이나 잔상이 남아서는 안된다. 따라서 입시 문화 속에서는 길고 감명적인 장편 소설은 설 자리가 없고 간단한 만화등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²⁴⁾

폭넓은 경험을 통해 자아를 탐색하고 확립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입시 준비에만 치중하는 청소년들이 주체성 없고 편협한 인간으로 성장하여 갈까봐 염려된다.

3. 성적 지상주의로 도덕성이 마비되다.

입시 위주 교육 풍토 속에서는 딴 생각, 딴 짓 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하여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지상 과제이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의 교육은 사회 성원으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도덕성을 함양시키기 위한 노력은 유보하고, 시험 성적을 올

23) 정범모의, 「교육의 본연을 찾아서—입시와 입시 교육의 개혁」, 서울:나남, 1993, 87쪽.

24) 정재걸, 「한국 교육의 종합 이해와 미래 구상—학생들의 삶과 문화—」, 한국교육개발원, 1992, 25-26쪽.

리기 위한 학과 공부에 주력하고 있다.

대입 수험생을 둔 가정의 기능은 수험생의 입시 준비를 지원하는 체제로 짜여지고 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의 입시 뒷바라지는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다른 일에 신경 안 쓰고 공부에만 전념토록 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해준다. 수험생의 건강 관리, 성적 관리, 수면 시간 조절을 도맡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사소한 심부름이나 집안 일, 자신의 방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까지도 면제해 주고 있다.

심지어는 자녀의 언행이 예의에 벗어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에도 입시 공부에 지쳐 있는 자녀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면죄부를 부여하기까지 한다. 1,200명의 수험생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는 “자녀의 성격이 모가 나더라고 대학부터 들어가 놓고 봐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비율이 각각 29.3%, 37.9%로 나타났다.²⁵⁾

이처럼 부모가 수험생의 손발이 되어 주기 바쁘고 수험생 자녀의 비위를 상하게 할까 노심초사하는 가족 문화는 틀림없이 청소년을 ‘자기만 아는 인간’으로 자라게 하는데 한 몫을 할 것이다. 앞의 설문 조사에 의하면 수험생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9.7%가 부모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학에 붙는 사람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은, 따라서 극심한 경쟁이 벌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부모와 학교의 교육 방향이 “자기 일에 충실하고 타인과 협동하는 사람이 되라”기

보다는 “남을 제치고 앞서 가라”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는 청소년들에게 공동체 윤리나 사회 연대 의식이 길러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욕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4. 다수의 실패자가 겪는 좌절과 방향

대입 지원자 중 실제로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은 30%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나머지 2/3는 ‘실패자’, ‘낙오자’가 될 수 밖에 없다. 단순히 숫자상으로만 고려한다면 다수에게 중심을 두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학교교육은 철저하게 대학에 진학할 능력이 있는 우수 집단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한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문화 기술 연구에 따르면 교사와의 ‘호흡 맞추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한 반에 4-5명 정도의 상위층 학생으로 한정되고 나머지 중하위권의 대다수 학생들은 아침 보충 수업 시간부터 경험하는 국·영·수 과목에서의 좌절로 시작하여 하루 학교 생활 동안 수업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학생들은 이러한 수업 시간을 가리켜 “청색은 칠판이고 하얀 색깔은 글씨”로 인식하는 ‘까막눈’ 생활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²⁶⁾

학교에서 성적의 서열은 학생들의 위상을 정하고 때로는 학생의 인격을 평가하는 준거가 되기도 한다. 인문계 고등학교 중에는 도서관 이용 자격을 성적 상위 집단에게만 부여하는 학교도 있고, 성적이 나쁜 학생에게는 반장, 부반장 등 학급 임원이 될 자격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똑

25) 이동원, “대학 입시와 가족”, 한국 사회학회 가족·문화 연구회 심포지엄 발표자료, 1992. 10.20.

26) 김소희, 앞의 논문, 35-36쪽.

27) 김소희, 앞의 논문, 41쪽.

같이 문제 행동을 했을 경우에도 교사는 공부 잘 하는 학생들에게는 ‘면제 특권’을 주며, 공부 못하는 학생에게는 ‘가중 처벌’을 한다.²⁷⁾

이와 같이 공부 못해서 대학 진학의 실패자, 낙오자가 될 수 밖에 없는 다수의 청소년들이 겪는 소외감, 모욕감은 그들을 무능감에 빠지게 하고 부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갖도록 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이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수 없다. 대학 진학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교육은 그 책무성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입시 준비 교육을 획일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현재 일반계 고교의 이수과정에는 인문·사회 과정, 자연 과정, 직업 과정의 3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직업 과정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1991년 현재, 1,496개 일반계 고등학교 중 14.6% 정도인 160개 학교에 그치고 있다.²⁸⁾

학교에서 다양한 진로 가능성에 대한 안내와 진로 준비 교육을 받지 못한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는 다른 방도가 없어 가능성도 없는 대학 진학의 대열에 끼게 되는 학생도 많다. 또 실패한 경우 다른 방식의 진로에 대한 지식도 없을 뿐더러 개척해 나갈 능력도 쌓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실패자들이 재수, 삼수의 길을 택하게 되거나 무직, 방황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VI. 맺음말

입시 경쟁과 입시 위주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

지 않는 한 한국의 청소년은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어렵고 따라서 우리의 장래는 밝지 못하다. 우리는 모든 청소년들이 자기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릇된 제도적 압력이 강요하는 획일적 삶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주체적 인간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 진학 위주의 획일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진로 지도를 다양화해야 한다. 예컨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중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없거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 수행에 필요한 기능과 소양을 갖추 수 있는 직업 과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 진학 일변도의 교육과정 운영과 진로 지도를 바로 잡고 다양한 진로 선택이 가능토록 하는 것은 교육체제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고등학교에서 취업 능력을 갖추어 준다 해도 취업할 기회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따라서 산업 쪽에서는 고졸자에게 충분한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고용 기회 창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 자리를 찾은 다음에는 임금·승진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 사회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학력 차별적 사회 관행을 지양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되리라 고 생각한다.

28) 신세호의, 「고졸 비진학자의 진로 실태 조사 연구」, 1991, 한국교육개발원, 63쪽.